

의안번호	제204호
의결 연월일	2015년 7월 1일 (제341회)

## 문장대온천 개발 저지 결의안

제출자	건설소방위원장
제출연월일	2015년 7월 1일

# 문장대온천 개발 저지 결의안

의안  
번호

204

제출연월일 : 2015. 7. 1.

제 출 자 : 건설소방위원장

## □ 주 문

- 문장대온천 개발 지구조합이 지난 6월 10일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 평가 본안'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함에 따라 청정지역 괴산군의 환경보호와 지역 주민들을 공익을 위해 온천개발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고자 함.

## □ 제안이유

-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2003년과 2009년에 대법원에서 개발허가 취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최근 문장대온천 관광휴양지 개발지구조합에서 개발을 재추진하고 있음.
- 괴산군에서는 온천개발사업에 대한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관광지 개발로 인한 대규모 환경재앙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
- 괴산군의 자연환경을 지켜내기 위해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아갈 것을 결의하고자 함.

- 보내는 곳: 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 문장대온천 개발 저지 결 의 안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이미 2003년과 2009년에 하류지역 수질오염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환경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개발허가 취소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동안 직·간접적 피해를 받는 지역인 괴산군 청천면은 물론 충청북도 차원에서도 명확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해왔다.

하지만,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 개발지구조합에서는 국가적 위기 상황인 메르스 사태로 인한 혼란을 틈타 슬그머니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접수하고, 다시금 관광지 조성사업을 수면위로 올려 심각한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려 하고 있다.

괴산군은 전 세계적으로도 소음과 공해가 없는 청정 지역으로 어디를 가도 싱그러운 바람과 맑은 물, 푸른 숲이

있는 계곡이 많으며, 금년 9월에는 2015년 괴산유기농산업 엑스포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환경적 자산이 가득한 고장이다.

이대로 조성사업이 진행된다면 소수의 사익을 위해 다수의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식수원 오염, 관광자원 훼손 등 대규모 환경재앙을 가져올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하다.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고려한 채 청정 지역 괴산군의 환경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괴산군의 자연환경을 지켜내기 위하여 충청북도, 괴산군, 시민단체, 학계 그리고 온천개발 저지 관련 대책위원회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온천개발 움직임이 철회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주민들의 환경권을 수호하기 위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아갈 것을 결의하고 천명하는 바이다.

2015년 7월 1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